

# 건강관리를 위한 集團검사 事業

健康人の 건강검사는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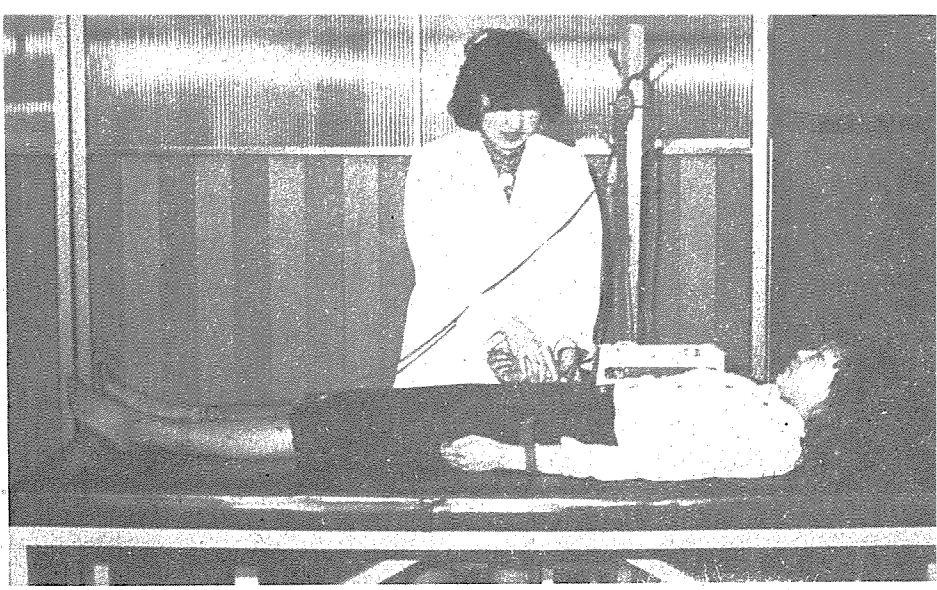
沈 亨 洙

로 진행 악화된 뒤에야 허둥지둥 병원을 찾아 가는 현실이어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심장질환, 간장질환,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고혈압, 자궁암 등의 비전염성만성질환은 성인층에서 발생하는 성인병으로서 그 피해는 가정에서는 가장이나 주부가 회사나 직장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재가 사회적으로는 귀중한 인재나 지도자가 직접 당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 성인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간의 가장 큰 희망은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이 행복한 생활을 위한 기본요건의 첫째가 건강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생활에 쫓기다 보면 자기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해가 거듭되는 동안 만성질환에 이환된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돌이킬수 없는 정도



성인병이 증가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이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근대화, 생활의 변화, 주거환경의 변화, 자동화, 교통수단의 편리등의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운동부족, 고칼로리식, 유해성물질의 접촉, 환경오염 등이 주원인이라 견해가 지배적이다.

편리한 생활의 추구는 또다른 부작용을 이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관리를 하는가 하면 조기축구, 조깅, 헬스클럽, 자연식품, 자연수, 조기등산 등으로 일부인사들은 체력관리 내지 건강관리에 몰두하긴 해도 자기건강체크를 주기적으로 해보는 이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최근 건강체크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건강체크를 원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경제

적부담, 수진소요시간의 제약, 수속절차 등의 문제점 때문에 건강체크를 원하면서도 좀처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므로써 가벼운 부담으로 손쉽게 건강체크를 해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설립되어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집단검사사업에 착수하였다. 집단검사의 방식으로는 우선 수속절차의 간소화로 직장이나 조직을 통하여 질환별 검사 및 종합검사 등의 구분에 따라 체크할 수 있는 건강검사수검신청서를 배부한 후 희망에 의한 신청을 받아 단위기간별로 검사일정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수검시간의 단축을 위하여는 검진빠스를 이용현장에 출장하여 심전도검사 혈압 측정 뇨검사 빈혈검사 등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시행하고 간이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혈당검사 등의 혈액분석에 필요한 채혈을 하므로써 수검이 완료되는데 1인당 소요시간은 2~10분에 불과하므로 근무중에도 잠깐 틈을 내면 수검할 수 있게 하였다.

경제적인 부담의 경감이란 점에서는 만어원이면 7개질환별검사를 총합한 종합검사까지 수검할 수 있게 되었고 검사결과는 심전도 자궁암 안저검사등은 종합병원의 권위있는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판정을 받은 후 개인별로 작성된 종합검사 성적서를 밀봉하여 전달 또는 우송하므로써 근무처에서 편리하게 건강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내원수검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가에 의해 수검할 수 있고 검사결과도 우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집단검사를 착수하면서 과연 수검희망자가 어느정도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 하였는데 막상 착수하고 보니 예상외로 수검희망자가 많았다. 신청순서에 따라 출장검사를 시작하여 연일출장검사에 임하면서 계몽에 주력하였다.

지난 연말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해를 넘겨 금년 1월까지 처리해야 될 정도로 수검희망자가 많은 것을 보고 높은 보건 의식의 척도를 가

늬할 수 있어 새삼 놀랐다. 검사를 추진하면서 자기도 모르고 지내던 만성질환을 발견해 주었을때의 보람은 연말의 연휴도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고달픔을 가시게 했다.

검사결과 유소견자가 예상외로 많은 점에 다시한번 놀랐다. 검사와 정에서 무엇보다도 정도관리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수시 권위있는 검사성과 비교 체크하여 정확도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는 일반진료기관의 검사성과와는 달리 정도유지가 되지않을 경우, 건강한 이를 환자로 만들수도 있고 이상이 있는 환자를 이상이 없다하므로써 질병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1975년 이래 3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예방의학에 관한 집단검사의 연수교육을 받으면서 앞서가는 일본의 예방의학사업을 익히는 한편 기협에서는 1976년부터 건강검사에 적용할 기술요원의 양성을 위해 검사소 직원들에게 각각 전문과목을 부여하고 매일 1시간 이상씩 사정회 학술연수회 등을 갖고 전문분야별로 발표케하여 자질향상을 꾀하는 한편 학생기생층검사가 없는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의 한가한 시기를 활용하여 대학부속 병원 및 종합병원에 의뢰하여 각자 전문별로 심전도검사실, 세포검사실,

임상생화학검사실, 혈액검사실 등에서 검사실기수련을 쌓게 하고 심도 있는 Report를 제출케 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전문기술요원 양성에 역점을 두어 건강관리사업의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던터라 건협이 설립되면서 곧바로 집단검사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고 기민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사성적의 신빙도에 관한 질문을 흔히 받게 되는데 즉 「Y검사실과 K검사실 그리고 P검사실에서 간기능검사 또는 혈당검사를 해보았는데 각각 검사성적이 많은 차이가 있는바 어느 성적을 믿어야 되느냐」는 등이다. 참으로 난처한 질문이다. 이내용을 상세히 보면 오차의 허용범위내에 있는 상이한 검사치가 대부분인가 하면 때로는 엉뚱한 검사치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참작하여 의사가 진단을 내려야 하는 사항을 검사성적의 수치를 진단의 절대조건으로 착각하고 본인이 직접 진단을 내리려는 무리에서 온 것이므로 장황한 설명을 해야했다.

후자의 경우가 난처하게 하였다. 정도관리의 측면에서 내부정도관리와 외부 타기관과의 비교관리를 하는 외부정도관리를 병행하는 검사기관이 신빙도가 높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기관이 정도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는지는 나도

알수 없다는 답을 해주곤 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뒷맛이 씁쓸한 반면 우리 건협의 건강관리사업에 각성제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해 보았다. 철저한 정도관리로 한사람의 이상소견자라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들은 우리 협회를 믿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를 앞당기게 되리라 확신하면서 건강관리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져 다짐해 본다.

〈필자=건협 대구직할시 검사소장〉

4 월은 보건의 달

“ “ “ “ “ “ “ “

早期 발견 早期 치료

행복한 건강생활



● 한국건강관리협회